

비공통적 신체 돌보기: 무관심한 돌봄과 협업을 통한 커먼즈의 생산

한경애

가족의 해체와 노동 불안정성 위에 펼쳐진 팬데믹과 생태적 재난은 돌봄의 개인화와 상품화가 만들어 온 ‘돌봄위기’를 전면화했다. 생명의 근본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위에서 ‘돌봄’을 우리 삶을 조직하는 새로운 인식론이자 윤리적 방법론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적 돌봄윤리(feminist ethics of care)가 주목받고 있지만 다소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용어로 설명되거나, 보편적 책임을 묻는 도덕적 요구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도쿄 요새바(일용직 노동시장)인 산야지역의 풀뿌리 운동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삶정치적 역학을 분석하고, 운동현장에서 개발된 돌봄 실천이 어떻게 공통화(커먼닝)의 과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여성주의적 돌봄 윤리를 둘러싼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일용직 노동자는 일본의 긴 근대화과정에서 값싼 일회용 노동력으로 생산되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요새바에 갇혀 있었으나,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영구적인 실업/야숙(野宿) 상태에 맞닥뜨린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가 요새바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과 거리에서의 죽음을 방지하는 동안, 이들을 돌본 것은 활동가와 NPO 단체들이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야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시작하지만 상당수의 야숙자(전 일용직 노동자)는 계속해서 거리에서 생활하길 선택한다. 산야의 운동 그룹 ‘산야 쟁의단’은 야숙자 배제에 맞서며 야숙을 지원했고, 이들의 활동은 정부는 물론 일부 운동단체로부터도 야숙자의 ‘인권 포기’를 종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산야의 사례는 돌봄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맥락에 내재되어 있는 실천일 뿐 아니라, 돌봄이 자율성, 안전, 의존과 자립을 둘러싼 다양한 생각과 감각들이 충돌하는 논쟁적인 영역임으로 드러낸다. 본 연구는 역사적 타자인 일용직 노동자들의 ‘야숙’을 해석하기 보다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이들과 관계 맺기 위해 개발해온 쟁의단의 돌봄전략을 분석한다. ‘보편성’이나 ‘권리’에 호소하는 대신 타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역사적/현재적 커먼즈를 재전유/창조하는 한편, 자본주의(가족과 국가)와 다른 방식으로 ‘위태로움’을 나누기 위해 개인과 집단 사이의 거리를 재조직하는 이들의 실천은 에도시대의 떠돌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속해 있던 ‘하룻밤 한끼’라는 역사적 커먼즈와 공명한다.

한경애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일본 사이타마 대학교에서 사회운동론을 가르치고 있다. 캐나다 사이버 프레이저 대학에서 미디어/문화연구로 석사학위를, 영국 런던 정경대학에서 인문지리/도시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아시아 도시들의 도시화과정 속에서 구성된 도시운동을 불안정성과 커먼즈라는 키워드로 연구하고 있다.

Date & Time: Nov 7, 2023.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